“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적극 대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열고 성명서 발표… TF팀 운영·개편 대응 계획 수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지난 6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먼저,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디지털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또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연 가운데 참석한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세번째로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정서적 결핍을 회복하기 위해 학급당 인원 감축과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자기주도적 가정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12년이 초과된 냉난방기, 석면 제거 등을 통해 OECD의 교육분야를 선도할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구성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개최한 1차 회의를 통해 향후 실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대학교수 및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구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수요 예측, 미래교육재정 수요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하고, 재정당국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교육세 일부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는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힘을 모으기 위해 학부모·시민 등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와의 면담 추진, 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장은성 기자

이재욱

최지원

전북대 이재욱·최지원 연구원 논문, 국제저널 게재

전북대학교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공학 연구실(AI&SE Lab) 이재욱·최지원 연구원(지도교수 류덕산)이 소프트웨어 결함 예측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 연구로, 최근 SCIE급 저널인 ‘IEEE Access’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논문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따라 적절한 매개변수 집합을 자동으로 할당해 우수한 결함 예측 성능을 보이는 HS-CSDT 기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 모델은 기존 결함 예측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 제한된 품질 보증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재욱 연구원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쁘고, 연구를 지도해 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는 만큼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국체전 출전 전북체고 선수들과 함께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7일 울산 문수테니스경기장을 방문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전북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상황실을 찾아 임원진을 격려하고, 전북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서 교육감은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땀 흘린 만큼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면서 “전북교육청 전 직원이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시공간재생 해법 찾다

노후주거지 경제활성화 위한 공유주택 등 전북대-전주시, 도시재생 우수 아이디어 발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전주시(시장 우범기)와 함께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2022년 전주시 도시재생 해법찾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과 청년 주도의 도시공간 혁신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대 LINC3.0사업단(단장 송철규)과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유·협업 활동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전주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전국 대학생 및 청년 40명이 모여 전주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현장 중 주거지 지원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인후반촌지우산마을, 팔복그린신복마을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화 아이템 발굴을 모색했다.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주간의 현장조사 기간과 주제 및 사례 강연, 문제해결 워크숍을 거쳐 10월 6~7일 1박 2일 동안 총 5개팀이 출전한 해커톤 대회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노후주거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주택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오순도순 프로젝트 △치유 둘레길 △Building to Billage △신복마을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등 참신한 사업화 아이템이 발표됐다.

이 중 ‘1등하조’팀의 △노후주거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주택 아이디어가 대상을, ‘영디케이’팀의 △신복마을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아이디어, ‘라이트온’팀의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오순도순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들 세 개 팀은 혁신적 아이디어로 선정돼 후속 창업지원도 받는다.

송철규 단장은 “지역사회 문제점에 대해 학생·청년들이 현장조사와 토론과정을 거치며 직접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후속 사업화에는 기업의 ESG활동과 연계해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MOT사업단 학생에 해외투자 기회 제공

전북대학교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권대규·이하 MOT사업단)이 과정생들에게 해외 투자설명회 기회를 제공, 실무능력 향상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기업 경영자, 재직자 등으로 구성된 MOT사업단은 석·박사 과정의 융합기술경영학과를 통해 과정생들이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융합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단은 최근 베트남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Mega Us’와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정부조달 상담회 수출컨소시엄’ 등에 참여해 과정생들의 재직 기업을 알리고, 참여 기업의 비교를 통한 기술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이준 과정생(내쇼날씨엔디) 대표가 7건의 구매 관련 상담과 구매의향서 1건을 확보했고, 정부조달 상담회에서 베트남 바이어와 2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김문석 과정생(오엔엠코리아) 구매의향서 2건, 김윤환 과정생(우성철강산업) 구매의향서 1건 등을 각각 확보했고, 다른 참여 과정생들도 재직 기업 홍보와 시장 트렌드 확인, 해외 투자 설명 실습의 기회를 가졌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내년도 전북 수석교사 10명 선발

초등 2·중등 8명 등 17일까지 서류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전라북도 수석교사 선발 계획’을 공고, 초등 2명·중등 8명 등 총 1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수석교사 결원교과인 일반사회·지리·지구과학·기술가정·음악 각각 1명과 결원교과 외 교과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원교과에 응시자가 없거나 미달인 경우 ‘결원교과 외 교과’ 선발 인원에 포함해 성적 우수자 순으로 뽑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023년 3월 1일 기준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다.

다만, 도내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교원의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그 외 징계처분 후 말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수석교사를 희망해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교원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초·중학교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국립·특수·고등학교 교사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전자문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10월 24~27일 1차 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 11월 3일 2차 역량평가를 거쳐 11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선발된 수석교사들은 2023년 3월 1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간 각급 학교에 배치돼 동료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돕고 수업방법 개선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방문 채용 ‘잇따라’

소피텔앰배서더호텔 등 대형호텔 인사담당자 직접 방문 채용면접 진행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7일 소피텔앰배서더 서울 호텔 앤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부총지배인과 인사부 과장이 직접 방문해 신입사원과 실습생 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피텔앰배서더 서울 호텔 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고급 스위트룸 객실 59개를 포함해 호텔 객실 403개와 레지던스 객실 160개를 보유한 프랑스 아코르 그룹의 5성급 최고급 브랜드 호텔이다.

소피텔앰배서더 서울 호텔은 코로나 팬더믹이 한창이던 2021년도 상반기에도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를 총지배인이 직접 찾아 학생 10명을 채용한 바 있다.

빈센트 거니건 소피텔앰배서더 서울 호텔 부총지배인은 “호텔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지난해 채용한 전주대 학생들의 인성과 근무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다시 전주대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심영국 학장은 “요즘 국내는 물론 해외 호텔에서 인사부 임직원들이 우리 대학 호텔경영학과 방문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력이 갖춰진 학생이라면 그만큼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반적인 호텔업계의 근무 조건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오는 12일 서울 소재 대형 호텔 인사 담당자가 실습생 채용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급식 컨설팅’, 12월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참여형 급식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교급식을 컨설팅한다.

학교급식종합컨설팅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급식운영·식단작성·레시피개발·예산관리·NEIS 사용 급식운영 자문과 급식위생·HACCP관리 등 위생안전분야, 급식시설과 설비, 영양·식생활교육, 전문가 자문, 장학 및 컨설팅의 유형으로 구성·운영된다.

교육급식 자문단은 학계 및 유관기관 등 급식운영 관련 전문 인력풀로 구성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급식운영 및 학생교육 활동 관련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현장지원 자문단은 교육급식 운영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활동, 급식운영의 유경험자 등 전문가로 구성돼 재능기부 형태로 학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수시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9월 2일~15일까지 희망학교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상반기 도내 컨설팅 신청학교 11개교의 2배를 넘는 24개교가 컨설팅을 희망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영양·식생활교육 및 동아리활동 등 장학영역에 대한 신청이 증가해 수석교사와 선배 영양교사가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학교가 희망하는 세부 내용에 따라 자문단과 현장지원단이 매칭해 학교 현장을 맞춤형 밀착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영양교사나 학교 급식시설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학교들에서 신청이 많았다”면서 “급식 운영의 발전과 개선을 고민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초등 영어말하기 시스템 도교육청, ‘AI 펭톡’ 활용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하반기 초등 영어말하기 시스템 ‘AI 펭톡’ 활용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초등교사와 교육전문직원 중 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AI 펭톡 활용 연수를 진행했다.

인공지능 기반 영어말하기 연습시스템 ‘AI 펭톡’은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풍부한 영어 말하기 환경을 제공하고 기초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날 EBS 창의융합교육부 권은경 과장은 ‘AI 펭톡’과 EBSe 학습 콘텐츠 안내를, 전주만성초 임석빈 교사가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AI 펭톡’ 실습 및 학급에서 영어 말하기 듣기 교육에 활용한 사례 등을 강의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 14개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의 ‘AI 펭톡’ 연수도 계획 중이다. /장은성 기자

한국경마축산고, 농식품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우리나라의 유일한 말 산업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문화된 실습교육 지원을 통한 말산업 분야로의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17일부터 20일가지 독일의 WRFS 교장인 말 산업 마이스터 Jacobs Jorg(야콥스 요르그)가 직접 축산고를 방문해 학생 및 말 산업 관심 유소년을 대상으로 특강 진행, 미래 말 산업 직업인으로서의 필요한 핵심역량 및 독일 취업 필요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를 제고했으며, 독일 산학 겸임교사는 12월 초까지 약 3달간 축산고에서 학생들과 말 산업 및 언어 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2월에 일정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 대상으로 독일 WRFS 승마학교에 파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